

공무 국외활동 보고서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2015. 08. 05(수) - 08. 08(토)

지역도시연구부
수석연구위원 김정연

[목 차]

1. 경관답사의 개요

- (1) 경관답사에 대하여
- (2) 경관답사의 일정(전체)
- (3) 경관답사의 일정(대지예술제 부분)
- (4) 경관답사의 참가자
- (5) 호텔정보

2. 일본(Japan)의 개요

- (1) 일본
- (2) 군마현
- (3) 니이가타현과 토오카마치시

3.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유산군

- (1)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 (2) 실크산업 유산군의 4개 자산
- (3) 도미오카 제사장

4.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 (1) 에치고츠마리
- (2) 대지예술제
- (3) 대지예술제의 주요시설
- (4) 대지예술제의 작품들

5. 동경도 오다이바 일대

- (1) 오다이바 일대

1. 답사 개요

(1)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답사 개요

● 답사목적

- 농촌지역의 소외화, 고령화에 고민하는 에치고츠마리를 무대로 지역에 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예술을 매개로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재생의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15년 전에 시작된 **대지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를 벤치마킹하였다. 이는 3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로 40여 개국의 아티스트에 의해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예술작품이 자연과 호흡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농촌을 살리고** 있는 현장이다.
- 이곳에 대한 답사를 통해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공주시 자연예술제 비엔날레를 공주시 원도심 재생에 활용하고 나아가서 주변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광역적인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법 : 추진주체의 구성운영, 예술가의 참여방법
 - 에치고츠마리의 대지예술제가 주는 공주시 자연미술제에의 시사점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유형과 역할

● 대지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현황

- 일시 : 2015년 7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3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
- 개최 : 에치고 츠마리 지역(니이가타현 도카마치시, 쓰난마치), 760km²
- 참여 : 40여 개국의 아티스트에 의해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
- 주최 : 대지예술제 실행위원회

● 답사일정 : 2015년 8월 5일(수)-8월 8일(토)

- 8월 5일(수) : 군마현의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201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
- 8월 6일(목) :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아트 트리엔날레
- 8월 7일(금) :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아트 트리엔날레
- 8월 8일(토) : 동경의 임해 부도심 "오다이바"

(2) 답사 일정(전체)

날짜	장소	교통	시간	일정
제1일 08/05 (수)	김포 하네다 군마현 유자와	대한항공 전용버스	06:30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대한항공 카운터 앞 집결) / 출국수속
			09:00	서울 김포공항 출발(대한항공 KE2707편)
			11:05	동경 하네다공항 도착 / 입국수속
			12:00	전용버스 탑승 / 이동
			12:30	점심식사
			13:00	군마현 도미오카시로 이동
			15:00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유산군 답사(2014년 세계유산 지정) - http://worldheritage.pref.gunma.jp/ja/
			16:30	에치고유자와로 이동
			19:00	호텔 체크인 후 저녁식사
			21:00	휴식
				HOTEL : 나스파 뉴오타니 호텔
제2일 08/06 (목)	유자와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 후
			08:30	도오카마치 시청으로 이동
			09:30	실행위원장 인터뷰 -에치고즈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에 대한 설명, 질문 등
			12:00	점심식사
			13:00	에치고즈마리 대지예술제 답사 - http://www.echigo-tsumari.jp/
			18:00	호텔로 이동
			19:00	저녁식사
			20:30	휴식 및 온천욕♨
				HOTEL : 나스파 뉴오타니 호텔
제3일 08/07 (금)	유자와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 후
			08:30	에치고즈마리 대지예술제 행사장으로 이동
			09:30	에치고즈마리 대지예술제 답사 - 코스는 별지 참조 - http://www.echigo-tsumari.jp/
			12:00	점심식사
			13:00	에치고즈마리 대지예술제 답사 - http://www.echigo-tsumari.jp/
			18:00	에치고유자와 역내 폰슈칸 관광 -니가타현 양조장 103곳의 대표 사케(술)가 한자리에 모인 곳
			19:00	저녁식사
			20:30	휴식
				HOTEL : 나스파 뉴오타니 호텔
제4일 08/08 (토)	유자와 오다이바 하네다 김포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 후
			08:30	다카한 호텔로 이동
			09:00	다카한 호텔 내부에 마련된 소설 설국(雪國) 전시실 관광
			10:00	동경으로 이동
			13:00	점심식사
			14:00	오다이바 답사 -오다이바에는 해변공원, 수변데크, 보행자전용도로, 팔레트타운, 호텔, 업무시설, 시노노메주거단지 등
			17:00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
			18:00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 / 출국 수속
			19:55	동경 하네다공항 출발(대한항공 KE2710편)
			22:10	김포 국제공항 도착 / 입국수속 후 해산

*

(3) 경관답사의 일정(대지예술제)

● 2015년 8월6일(木) 세부일정

시간	장소	비고
08 : 30	호텔출발	
09 : 00	에치고유자와(越後湯沢) 출발	
09 : 30-10 : 45	대지예술제에 대한 설명	
11 : 00-12 : 00	越後妻有里山現代美術館 [키나레 : キナーレ]	
12 : 00-12 : 45	【점심식사】 미술관내 식당(越後しなのがわバル)	
13 : 15-13 : 45	두더지의 집(もぐらの館)	
14 : 20-14 : 50	그림책과 나무와 열매의 미술관(絵本と木の実の美術館)	
15 : 20-16 : 00	まつだい「農舞台」、まつだい郷土資料館	
16 : 20-16 : 45	의사의 집(ドクターズハウス:イ・ブル)	
17 : 00-17 : 25	폐가의 스펙트럼(つんねの家のスペクトル)	

● 2015년 8월7일(金) 세부일정

시간	장소	비고
08 : 30	호텔출발	
09 : 00	에치고유자와(越後湯沢) 출발	
10 : 00-10 : 40	창고미술관(清津倉庫美術館)	
10 : 55-11 : 20	포템킨(ポチヨムキン)、많은 잃어버린 창을 위하여(たくさんの失われた窓のために) 등	
11 : 35-11 : 55	Kiss&Goodbye (ジミー・リャオ)	
12 : 00-12 : 50	【점심식사】 소바	
13 : 05-13 : 25	배의 집(船の家)	
13 : 45-14 : 15	토석류의 모뉴먼트(土石流のモニュメント:磯辺行久)	
14 : 25-14 : 50	최후의 교실(最後の教室)	
15 : 20-15 : 50	탈피하는 집(脱皮する家)、계단식논(星峠の棚田)	
16 : 00-16 : 25	하천의 캠퍼스(奴奈川キャンパス)	
16 : 45-17 : 10	삼성하우스(三省ハウス)	국도에서 걷기
17 : 30-18 : 00	숲속의 학교(森の学校キョロロ)	

2. 일본 및 답사지역의 개요

(1) 일본

○ 일본

▶개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다. 태평양 남서 방향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자리한다.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의 4개 주요 섬과 4,0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개 특별도, 1개 도, 2개 부, 43개 현으로 나뉜다. 크게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의 8개 지방으로 나뉜다. 일본어로 '니혼' 또는 '닛폰'이라고 하며, 공식 국호는 닛폰고쿠(日本國)다.

▶기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적 특색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 차가 심한 편이며 연평균 기온차가 16도에 이르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 기후에 속해 비교적 따뜻하다. 그러나 북쪽의 홋카이도는 무척 추운 편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나타낸다. 반면에 최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띠며, 우리나라 야구선수단의 겨울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가 높다. 동해 쪽은 대체로 서늘한 반면, 태평양 쪽은 고온다습하다.

▶종교

불교와 신토(神道), 기독교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일본인은 대부분 명절이나 축일이면 신사에서 기원을 하며,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르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신토는 일본인의 생활에서 가장 뿌리 깊게 자리한 종교로서 토착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토는 신사 참배의 형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띠었다. 점차 선조를 모시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씨족신과 고장의 수호신을 섬기는 신사 신토 외에 국가 신토, 황실 신토 등이 있다.

불교는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주로 귀족 사이에 전파되었던 것이, 13세기경부터 서민 사이에서 급속히 번졌다. 지금은 전통 종교로 많은 신도가 있다. 불교보다 조금 늦게 전파된 기독교는 16세기경에 들어왔으며 초기에는 혹독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후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서야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면서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인은 두 개 이상의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표문화

섬나라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겨난 '和[와]' 문화가 있다. 和[와] 문화란 '조화'를 나타내는 말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전통 문화다. 벼 화(禾)자와 입 구(口)자가 합쳐진 형상으로 '사람들이 서로 밥을 나눠 먹는다'는 뜻을 내포한다. 지리적 특성으로 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 못했던 일본은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상이 점차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보다는 조직, 나아가서는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일본인의 특성에서 和[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2) 군마현

○ 일본의 정중앙

도쿄에서 불과 100km, 일본 한 가운데 위치, 날갯짓 하는 "학" 모양의 지형

일본 열도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군마현. 그 모양은 널리 현민에게 사랑 받는 향토 가르타 중에 한 장의 카드에 "학이 춤추는 모습의 군마현"이라고 칭송되는 것과 같이 "학이 크게 날개를 펼쳐 날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 "아카기, 하루나, 묘기산의 총칭인 조모산잔"을 비롯해 아사마야마, 다니가와다케 같은 명산과 국립 공원의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오제 등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한편, 현의 남동쪽에는 완만한 간토 평야가 펼쳐지고 역사와 문화가 꽃 피는 지방 도시가 산재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도 번성하고 있다.

○ 일본 제일의 온천

수많은 "일본 제일"이 여기 "군마"에 있습니다

구사쓰, 이카호, 미나카미, 시마 4대 온천을 비롯해 군마현 내에는 200개 이상 온천지가 있다. 우리 현이 전국 최고의 "온천 대국"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수질, 용출량, 역사,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온천이 많기 때문이다. "자분수류 용출량 일본 제일"의 온천도 "일본의 온천 100선 종합 랭킹 1위" 온천도 "국민 보양 온천지 제 1호"도 "일본 삼대 미인탕"의 하나인 온천도... 온천에 관련된 많은 "일본 제일"이 여기, 군마에 있다.

○ 풍부한 자연

풍부한 물과 초록이 빛나고 사계절마다 모습을 바꾼다

해발 고도 2000미터 급의 산들에서 고도 몇 미터 평지까지 포함해 여러 가지 지형이 있는 군마현. 현 면적의 약 3분의 2를 산림이 차지하고 북부에서 서부에 걸쳐 산악, 구릉이 이어져 있다. 또한, 유역 면적 일본 제일인 "도네가와"의 수원을 품고 자연 댐이 되어 주는 숲과 수많은 인공 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물병"라고 불릴 정도로 수자원이 풍부하다. 맑은 물과 풍부한 녹음이 자아내는 자연의 풍경은 계절마다 그 표정을 바꾸고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 군마의 음식

군마는 다채롭고 신선한 음식재료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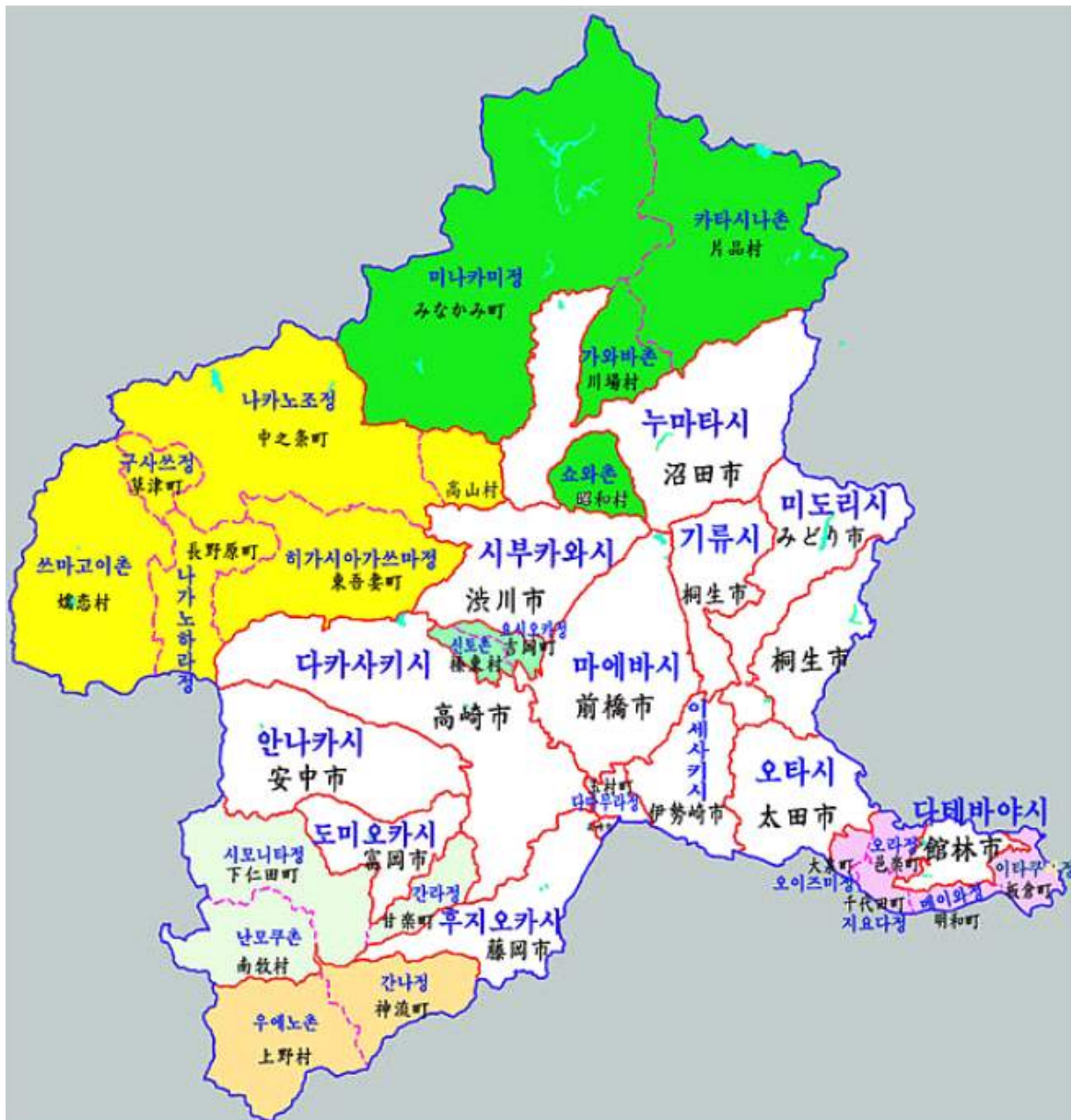
풍부하고 윤택한 대지와 일조량이 풍부한 군마현에서는 연중 다양한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쌀, 보리 등의 곡물, 야채,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많은 신선한 재료를 수도권 등 소비지에 보내는 공급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안심·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런 신선한 음식재료를 사용한 명물 요리도 많고 현 내에는 "TONTON 마을 마에바시"나 "파스타의 거리·다카사키"등과 같이 지명을 직접 거론하며 "요식업"을 장려하는 지역도 있다. 미식가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일품에서 B급 음식까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 군마의 역사와 문화

오랜 옛날 그 날을 기억하며...

"호토다 고분군", "시로이시 고분군", "하치만 고분군"의 삼대 고분군을 비롯하여 현 내 각지에 흩어져있는 고분군은 고대·도고쿠 문화의 중심으로 융성했던 때를 그리며 회상하게 한다. 또한 "요기신사" "하루나신사" "세라다토쇼궁"등 유서 깊은 신사 불각과 역사적인 건축물, 문화재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하루나 신사"는 최근 들어 관광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도미오카제사공장" "메가네바시(우스이토게 철도 시설, 교량)"로 대표되는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하던 "근대화 유산"은 최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개성이 풍부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역사유산과 문화적 자산은 군마의 오늘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니이가타현[Niigata]과 도오카마치시

○ 니이가타현[Niigata]

▶ 개요

니이가타현은 혼슈의 동해(일본해)쪽에 위치한 곳으로 산과 고개가 많다. 지리적인 요소의 차이로 조에쓰지방, 츠에쓰지방, 카에쓰지방, 사도지방의 4개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특히 츠에쓰지방과 조에쓰지방의 산간부에는 스키장이 발달해 있고 매년 겨울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스키를 타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또한 일본 제일의 쌀생산지로서도 유명하여 특히 우오누마지방의 '코시히카리'는 일본 제일의 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에도시대(1603-1867)까지 니가타현은 "에찌고"와 "사도"라 불리었다. 현내 각지의 항구는 도호쿠(東北)지방과 간사이(西)지방을 잇는 해상 항로인 '기타마에부네'의 기항지로서 번성하였다. 1858년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의해 니가타항이 일본 서해안에서는 유일한 개항지가 되었으며, 1871년에는 에도시대의 행정 구역인 "번(藩)"이 폐지되고 지방 정부 기관으로서 "현"이 설치되어 이 후 수 차례에 걸친 통·폐합을 통해 1876년에 이르러 지금의 니가타현 모습이 정착되었다

이 지역은 전국시대에 우에스기 겐신에 의해 통일되었고 그의 정책에 의해 광산의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사도가시마의 은광에서는 에도시대에 연간20톤의 금이 발굴되어 그 후 에도막부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고 한다. 니가타현을 상징하는 새인 일본산 따오기는 2003년에 멸종되었으나 현재 중국에서 보내온 2마리의 따오기가 사도시에서 소중하게 사육되고 있다.

▶ 지리

지리적으로 니가타 현은 이 주부 지방에서 동해에 접하는 호쿠리쿠 지방에 속한다. 그러나 호쿠리쿠 지방의 도야마 현, 이시카와 현, 후쿠이 현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간키 지방의 영향력이 강한 것에 대해 니가타 현은 고속교통망 정비에 따라 도쿄 및 간토 지방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현재는 나가노 현, 야마나시 현과 함께 고신에쓰 지방, 더욱 간토 지방과 합쳐서 "간토 고신에쓰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마나시 현을 제외하고 "신에쓰(信越) 지방", 또한 이와 호쿠리쿠 지방을 합쳐서 "호쿠신에쓰(北信越) 지방"이라고 말할 경우도 있다.

또 니가타현은 위치가 도호쿠 지방에도 가깝고, 특히 동부의 가에츠 지방에서는 도호쿠 지방의 후쿠시마 현에서 흘러온 강이 흐르고 있거나 방언과 기후 등이 후쿠시마 현, 야마가타 현과 유사하기도 한다. 더욱 센다이 시에 본사가 있는 도호쿠 전력이 도호쿠 지방의 여섯 현과 함께 니가타 현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호쿠 지방의 경제인을 중심으로 니가타 현을 도호쿠 지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기후 및 주요 산업

기후는 겨울에 폭설이 내려 세계적인 다설지대를 이루고, 봄에는 핀(Fohn) 현상이 뚜렷하다. 니가타시의 연평균기온은 13.0℃, 강수량은 1,850mm 정도이다. 산업은 벼농사 중심으로 일본 제1의 곡창지대이다. 쌀의 단작(單作) 외에 톨립 재배가 유명하다. 수산업은 사도섬 근해에서 고등어·멸치·대구·전갱이 등 연안어업이 이루어지고, 수산양식업도 활발하다. 원래 석유가 생산되었으나 생산량이 줄고, 대신 석회석·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관토지방까지 공급되며, 니가타시를 중심으로 전기기계·금속제품·일반기계·섬유·식료품등이 발달하였다.

니가타항은 해륙교통의 접점으로 러시아 연방과 북한에 대한 문호 구실을 하며, 재일교포의 북송이 이 항구에서 이루어졌다. 화산·온천이 많아 여름에는 피서객, 겨울에는 스키어들이 모여들어 관광휴양지로 발전하고 있다.

▶특산물

고시히카리 쌀

니가타는 일본 최고급 명품쌀의 생산지이며 니가타에서도 우오누마 지방은 가장 맛있는 고시히카리 쌀이 생산되는 곳으로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 최고급 쌀의 비밀은 일본 최고의 다설지 우오누마 지역의 산악지대에 겨울내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눈이 녹아 생기는 청명한 물과 한난의 차가 큰 천혜의 기후에 있다

사케

니가타는 현 내에 약 90여곳의 양조장이 있는, 일본 유수의 일본주(사케) 산지입니다. 술을 빚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일컬어진다. 니가타의 높은 산들에 쌓인 눈과 비가 지면에 스며들었다가 용수가 되어 솟아나고, 실개천을 따라 흐르다가 이윽고 논과 밭에 모여든다. 이 물이 술맛을 더욱 맛있게 만들고, 또한 술의 원료가 되는 「쌀」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도 중요하다.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양조의 과정에는 니가타의 겨울 기후가 딱 알맞다. 니타의 사케는 「물」과 「쌀」, 「기후」, 그리고 「기술」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일류품이다.

기모노

중세에서 에도시대까지 카라 무시를 원료로 한 에치고 피복으로 알려진 대마 직물의 산지로 번영하였고, 그 다음은 견직물로 전환하여 성장했다. 도카 기모노 산업의 특징은 조직과 염색 모두의 산지인 것이다. 조리개, 초목 염색, 명주 등 다양한 기술이 계승되어 현재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도카마치시[Tokamachi]

▶ 개요

토카마치 시는 니가타 현 남부에 있는 시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모노 산지이고 고급 쌀 산지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2004년의 니가타 현 주에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1954년 3월 31일 도카정[十日町], 나카조촌[中条村], 롯카촌[六箇村]이 통합하며 시제시행을 통해 도카마치시가 되었다. 시의 명칭은 도카정[十日町]에 그대로 '시(市)'만을 추가해 정했다. 이후 몇 개의 정촌을 흡수했으며, 2005년 4월 1일 가와니시정[川西町], 나카사토촌[中里村], 마쓰노야마정[松之山町], 마쓰다이정[松代町]과 통합하여 새로운 도카마치시가 탄생했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에는 2~3m 정도의 적설량을 보이는 특별폭설지대이다. 일본에서 제일 눈이 많은 곳으로서도 알려지고 있으며 4m 이상 쌓이는 곳도 있다. 도마산[当間山] 등의 산이 있으며 시나노강[信濃川], 시부미강[渋海川] 등의 하천이 흐른다.



▶ 주요 산업

주요산업은 섬유산업 및 농업이다.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견직물생산이 발달하였으며 일본전통의복인 기모노[着物] 생산으로 유명하다. 양질의 쌀 생산으로도 유명하다.

철도는 JR이야마선[飯山線], 도로는 국도117호, 국도252호, 국도253호, 국도353호, 국도403호, 국도405호 등이 지난다. 명소로는 키요쓰쿄[清津峡], 도마고원[当間高原], 마쓰노야마온천[松之山温泉], 도카마치시마쓰다이패밀리스키장[十日町市松代ファミリースキー場]— 마쓰노야마온천스키장[松之山温泉スキー場], 조몬시대[縄文時代]유적인 사사야마유적[笹山遺跡], 본당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마쓰오신사[松茸神社] 등이 있으며 해마다 도카마치유키마쓰리[十日町雪まつり] 등의 축제가 열린다.

○ 에치고 유자와 [Echigo yuzawa]

에치고유자와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편리한 입지의 온천지로 카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무대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니가타현 경계지점의 산속 우오노강가에 펼쳐지는 마을로 테니스와 골프 등의 스포츠시설과 나에바, 이시우치, 가라유자와 등의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피서지, 겨울에는 스키리조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여관과 호텔, 기념품가게 등이 들어서있는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키요쓰쿄와 아키야마고 등 진녹색의 산과 청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에치고유자와 역 내에 있는 「에치고노 오사케 뮤지엄 폰슈 관」에서는, 온천에 청주를 넣은 청주탕에서의 입욕을 즐길 수 있다.

역 주변에는 세계의 명봉 사진 약 170점이 전시되어 있는 "유자와마치 시라하타 시로 세계산악 사진미술관"을 비롯하여, "유자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자와마치 역사민속자료관" 등의 볼거리가 있다.

온천가의 "산로쿠 역"에서 "유자와 온천 로프웨이"를 타면 해발 1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산초역" 주변에는 고산식물원인 "아르프노사토"가 있으며, 봄에는 물파초, 여름에는 닛코키스게,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송 등의 단풍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온통 은세계로 변하며 많은 스키객들로 붐빈다.



3.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 (<http://worldheritage.pref.gunma.jp/ja/>)

(1)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의 개요

- 군마현은 에도시대부터 양잠, 제사, 직물업이 왕성하게 발달하였다. 도미오카 제사장은 대량으로 고치 입수가 가능한 군마현에 건설되면서, 이들은 고품질 대량생산의 실크산업을 발전시켰고, 양잠업기술을 혁신시켰다. 도미오카 제사장, 다지마 야헤이 옛집, 다카야마사 터, 아라후네 풍혈은 기술혁신의 주요 무대였고 이들은 201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은 고품질의 생실을 대량생산화한 '기술혁신'과 세계와 일본 사이의 '기술교류'를 주제로 한 근대 실크산업과 관련된 유산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실크 대량생산 기술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특권계급만이 누렸던 실크를 전세계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생활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켰다. 도미오카 제사장과 3개의 양잠 관련 자산(다지마 야헤이 옛집, 다카야마사 터, 아라후네 풍혈)은 그 사실을 현재로 전해주는 증거이다.



도미오카 제사장 : 프랑스 기술을 도입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 제사공장



다지마 야헤이 옛집 : 기와지붕에 환기설비를 갖춘 근대 양잠농가의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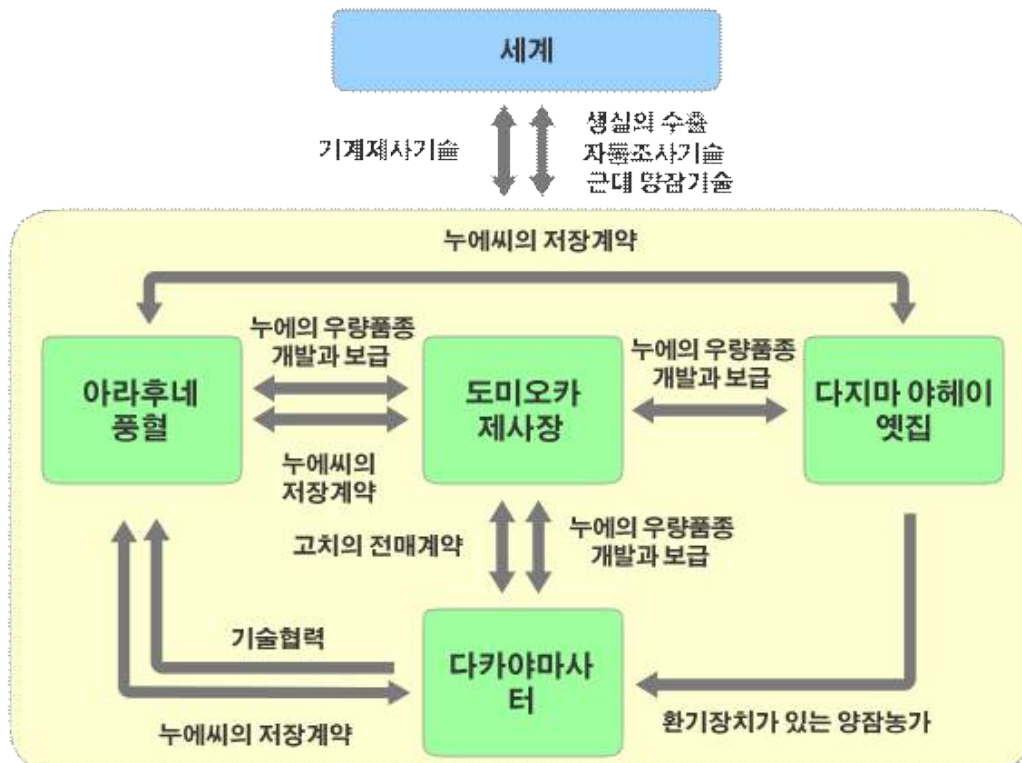


다카야마사 터 : 일본 근대 양잠법의 표준
'청온육(淸溫育)'을 개발한 장소



아라후네 풍혈 : 자연의 냉기를 이용한 일
본 최대 규모의 누에씨 저장시설

-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은 고품질 생실의 대량 생산을 실현해서 실크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일본과 다른 국가들과의 산업기술 상호교류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서구에서 도입한 기계제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양잠업 기술을 혁신하여 그 기술들을 다시 세계 각국으로 널리 퍼뜨렸다. 도미오카 제사장·다지마 야헤이 옛집·다카야마사 터·아라후네후케쓰는 생실 생산 각 과정에 있어 기술혁신의 주요 무대였으며 교육과 출판, 거래 등을 통해 전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상호 연계에 의해 질 좋은 고치를 개발·보급 : '도미오카 제사장과 실크산업 유산군'을 구성하는 4개의 자산은 각각이 기술혁신의 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서로 연계되어 기술을 교류하고 있었다. 특히 도미오카 제사장이 질 좋은 고치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고치 개량운동을 실시했을 때 다지마가·다카야마사·아라후네 풍혈은 시험사육과 누에씨 제조, 사육 지도, 누에씨 저장 등 우량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협력했다.



(2) 실크산업 유산군의 4개 자산에 대하여

○ 도미오카 제사장

: 1859년 개항 후 일본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생실의 품질 향상과 증산을 꾀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 도미오카 제사장을 설립했다. 도미오카 제사장에는 증기기관이나 프랑스식 조사기 등 서구기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서 일본 전국으로 기계제사기술이 전해졌다. 제사장은 민영화 후에도 제사기술 개발의 최첨단에 서서 양잠업과 연계된 누에의 우량품종(1대 잡종) 개발과 보급을 주도해 왔다. 1952년에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자동조사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자동화의 모델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987년, 생실의 세계적인 가격경쟁 영향으로 도미오카 제사장은 조업을 정지하게 되었고 이로써 115년간 계속된 생실 생산이 막을 내렸다.



○ 다지마 야헤이 옛집

: 다지마 야헤이의 옛집이 있는 시마무라는 에도시대부터 누에의 알(누에씨) 제조가 왕성한 지역이었다. 다지마 야헤이는 좋은 누에씨를 만들기 위한 양잠법을 연구하여 통풍을 중시한 '청량육(淸凉育)'을 대성했고 1863년에 솥을 지붕이 있는 주거겸 잠실을 완성했다. 야헤이가 저술한 '양잠신론', '속양잠신론'에 의해 이 구조는 각지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 근대 양잠농가 건축의 원형이 되었다. 또, 야헤이 등은 1879년부터 1882년까지 이탈리아에 누에씨를 가져가 현지에서 직접 판매(직수출)하기도 했다. 이 때 서구의 문화와 함께 가져 온 현미경으로 야헤이는 누에의 병을 연구했다. 도미오카 제사장이 고치의 개량운동을 시작했을 때 다지마가는 외국종과 1대 잡종의 시험사육에 협력했다.



○ 다카야마사 터

: 다카야마 초고로는 고치의 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 인물로 환기와 온도, 습도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청온육'을 확립하고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1884년에 양잠 교육기관 '양잠 개량 다카야마사'를 설립했다. 다카야마사에서는 그 학교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받아들였고 또 현지로 가 양잠을 지도하는 수업원도 일본 국내, 중국, 대만, 한반도에 파견했다. 이것에 의해 '청온육'은 일본 근대 양잠법의 표준이 되었다. '청온육'의 발상지인 이 곳은 오랫동안 양잠의 실습장으로 이용되었다. 도미오카 제사장이 고치의 개량운동을 시작했을 때 다카야마사는 외국종이나 1대 잡종의 시험사육, 농가에서의 사육 지도 등에 협력했다.



○ 아라후네 풍혈

: 일본의 양잠은 고대부터 1년에 1번 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여름에도 저온의 바람이 나오는 풍혈이라 불리는 장소에 누에의 알(누에씨)을 저장하여 부화시기를 조절해 1년에 여러 번 양잠을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다카야마사에서 배우고 있던 니와야 센주가 이 곳에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장소를 발견했고 그 아버지 세이타로가 1905년부터 1914년에 걸쳐 기상학과 양잠, 토목의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이 누에씨의 저장 풍혈을 건설했다. 아라후네 풍혈은 일본 최대의 저장 규모를 자랑하며 일본 내 40개 도부현(道府縣)을 비롯해 한국에서 온 누에씨도 저장했다. 이 시설을 이용한 양잠의 다회수화로 고치의 증산에 공헌했다. 또, 도미오카 제사장이 고치의 개량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시험사육용 누에씨를 보관하는 등의 협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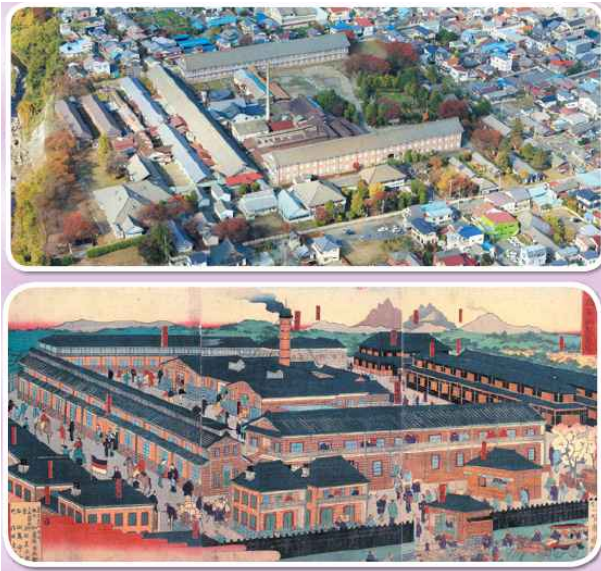


(3) 도미오카 제사장에 대하여(<http://www.tomioka-silk.jp/hp/kr/>)

○ 토미오카 제사장은 왜 세웠나

토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최초로 설치한 모범 기계제사(器械製絲) 공장이다. 일본은 에도시대 말에 이르러 쇠국정책을 전환시켜 외국과 무역을 시작했다. 당시 최대의 수출품은 생사(生絲)였다. 수출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질 낮은 생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해 일본 생사의 평가가 떨어졌다.

메이지 유신 후 정부는 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서 생사 수출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겼다. 그래서 정부는 생사의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 및 기술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서양식 조사(繰絲)기계를 갖춘 모범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 토미오카가 왜 선정됐나

1870년, 요코하마의 프랑스 상관(商館)에서 근무하던 폴 부뤼나 등이 무사시·고즈케·시나노의 각 지역을 조사하여 고즈케(현재 군마현)의 토미오카에 터를 잡았다.

- 토미오카 부근은 생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누에고치를 확보할 수 있다.
- 공장 건설에 필요한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 실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카부라강, 타카다강).
- 연료인 석탄을 근처 타카사키에서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토미오카에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토미오카 제사장 전경



당시의 카부라 강

○ 어떤 공장이었나

토미오카 제사장은 식산흥업(생산을 늘려 산업을 흥하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대규모 건축물군이 현존하는 산업시설이다. 조사장(操絲場)은 길이 약 140.4미터, 폭 12.3미터, 높이 12.1미터로,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 조사장이었다. 공장건설은 1871년부터 시작된 후 다음해 1872년 7월에 완성, 10월 4일에는 역사적인 조업이 시작되었다. 누에고치를 생사로 만드는 조사 공장에는 300명이 같이 작업하는 조사기가 설치되어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공장 여직원들이 일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기계제사가 시작되었다. 외국인 지도자가 떠난 1876년 이후에는 일본인만으로 조업했다. 관영(정부가 직접 경영) 시기에 경영상 흑자가 지속되지는 않았으나, 고품질에 중점을 두고 만든 생사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기계 제사의 보급과 기술자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을 무렵, 관영 공장 불하(국가 재산을 민간에 매각)의 취지에 따라 1893년에 미쓰이에 불하됐다. 그 후, 1902년에 하라 합명회사에 양도되었고, 미노리가와식 조사 기계를 사용한 고품질 생사의 대량생산 및 누에 종류의 통일 등으로 주목을 끌었다. 1938년에는 주식회사 토미오카 제사소의 이름으로 독립했으나, 1939년에는 일본 최대의 제사 회사였던 가타쿠라 제사방적 주식회사(현재 가타쿠라공업 주식회사)에 합병됐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및 2차대전 후에도 제사 공장으로서 오래 이름을 날렸으나, 생사 가격의 저하 등으로 인해 1987년 3월에 드디어 조업을 정지했습니다. 조업이 정지된 후에도 장내의 거의 모든 건물이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 토미오카 제사장, 현재 모습

조사장, 동·서 누에고치창고, 외국인 숙소(여직원관, 검사인관, 부뤼나관) 등 거의 모든 주요 건물(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은 창업 당시와 다른없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메이지 정부가 세운 관영 공장 가운데 거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한 공장은 토미오카 제사장뿐이다.



조사장



동쪽 누에고치 창고



서쪽 누에고치 창고



여직원관



검사인관



부뤼나관

○ 누가 만들었나

메이지 정부는 외국인 지도자로서 프랑스인 폴 부뤼나를 채용했습니다. 부뤼나는 토미오카를 건설지로 선정, 제사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를 프랑스에서 데려오거나 서양식 기계를 일본인의 체격에 맞게 개량하도록 주문해 들여오곤 했다. 건물설계는 요코스카 제철소 건설에 종사한 같은 프랑스인 오그스트 바스티안이 담당했다. 오다카 아쓰타다는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당초부터 건설에 관여하면서 건축 자재 조달에 힘을 쏟았다. 후일 초대 소장을 맡게 된 오다카는 그의 딸 유를 '공장 첫 여직원'으로서 종사시켰다.



공숙화를 색도 인색한 목관화"조슈 토미오카 제사장 그림"

○ 어떤 공법으로 지었나

주된 건물은 목재로 뼈대를 세우고, 벽 사이에 벽돌을 쌓는 '목골 벽돌 구조'로 지어졌다. 서양의 새로운 재료인 벽돌을 도입하면서도 지붕은 일본식 전통 기와를 올리는 등 일본과 서양의 건축기술을 훌륭히 융합해 지었다. 건축물의 주요자재는 돌, 나무, 벽돌, 기와로 구성되어 있고, 철 테두리의 유리창이나 여닫이문의 경첩 등은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러나 건축 규모가 무척 커서 자재를 조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심이 되는 재목은 주로 국가 소유림에서 벌목을 했습니다. 삼나무의 큰 것은 묘기산, 소나무는 아가쓰마에서 조달하고 작은 재목은 가까운 산림에서 모았다. 또 초석의 석재는 렌세키산(간라정)에서 잘라 만들었다. 벽돌은 프랑스인 기술자가 기와 직공에게 제작법을 가르쳐, 후쿠시마마치(현재 간라정 후쿠시마)의 사사모리이나리 신사 동쪽에 가마를 만들어 기와와 함께 구웠다. 그들의 중핵을 이룬 사람은 사이타마현 후카야에서 온 기와 직공이었다. 벽돌 줄눈에는 회 반죽을 시멘트의 대용으로 사용했다. 원료로 쓰인 석회는 시모니타정 아오쿠라·구리야마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벽돌은 프랑스식 쌓기로 불리는 공법으로 쌓았는데 이는 프랑스인이 벽돌쌓기에 관여했던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건축물에 수려함을 더해주었다.



○ 메이지 시대의 식산흥업

당시 근대화를 추진하던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는 국가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식산흥업을 핵심 시책으로 정했다.

각국과의 교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들로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제사 공장의 건설 요청이 나오게 되었지만, 정부는 근대적인 제사 공장을 국내 자본으로 건설해야만 일본의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간 자본에 의한 공장 건설은 어려운 상황으로, 1870년 2월, 기계 제사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 관영 모범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신슈 지방 마쓰시로의 사족(무사 가문)의 딸 와다(요코타) 에이는 토미오카 제사장장에서 생활한 나날을 후일 '토미오카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모범공장의 기본방침은, 서양식 제사기계를 도입한다, 외국인을 지도자로 삼는다, 전국에서 여공을 모집하여 전습을 마친 여공은 출신지로 돌아가 현지 지도자로 삼는다 등이었다. 토미오카 제사장은 메이지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사사업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사 사업에 관한 외국 자본의 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다했다.



중속화를 색도 인쇄한 목판화
"토미오카 제사장 여직원들의 공부하는 그림"

○ 도미오카 제사장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토미오카 제사장은 메이지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에 따라 설립된 관영 모범공장으로, 일본 잠사(누에고치실)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국가가 제사장을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일관해서 제사공장으로 기능했다. 일본의 근대화, 경제·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며, 설립 당시의 부지와 주요 건축물이 양호하게 보존되어있는 점도 매우 가치가 높아,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토미오카 제사장처럼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인 오래된 공장과 광산, 제철소 등의 산업시설은 '산업유산'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가치가 큰 산업유산 중에는 이미 세계유산에 등록된 유산도 적지 않다. 토미오카 제사장과 같은 섬유산업 공장으로서의 더웬트 계곡의 공장군(영국), 크레스피 다다(이탈리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4.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1) 에치고츠마리

○ 에치고츠마리

면적 760km²의 에치고츠마리는 니가타현 남단에 위치한 도오카마치시와 츠난마치라는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일컫는 말로 도쿄 23구를 합친 것보다 넓은 지역이다. 도쿄에서 전철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일본 유수의 폭설지대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에치고츠마리에서는 국보 '화염형 토기'가 출토되는 등, 조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며 농업을 통해 대지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계절의 풍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연의 힘이 빚어낸 일본의 오랜 풍경,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토야마(마을에서 가까워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림)'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구과소지역(75,000명)으로 꼽히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노령화지역이다

도시와 지역, 아티스트와 사토야마, 젊은이와 고령자의 교류와 협동이 낳은 약 200점의 예술작품을 마을과 논, 빈집, 폐교 등을 무대로 삼아, 760km²에 이르는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세계의 유명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대부분의 작품은 현지 주민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여행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둘러보는 코스 곳곳에서 계단식 논과 너도밤나무 숲, 축제, 전통행사 등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에치고츠마리의 풍토와 문화를 오감 가득 느낄 수 있다. 사토야마 전체가 놀이와 배움의 장이 되고 이곳에서의 체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대지의 새로운 인연을 느끼게 한다.

▶ 농촌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에치고츠마리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시골모습의 전형인 에치고츠마리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농촌의 위기를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다.

도시를 향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이농, 혹은 탈농현상, 그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고령화와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그런 현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심각한 '지역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의 농촌에 대입해 봐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위기 말이다.

▶ 예술에서 답을 찾다, 대지의 예술제

"주민1인당 생산성이 시간당 200엔 밖에 되지 않는 에치고 츠마리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는 지역관계자의 설명처럼 지역회생 프로젝트인 'NEW 니가타 마을 만들기'의 신호탄으로 1996년, 이 곳 에치고츠마리를 선택하여 '에치고츠마리 아트 네크리스 정비사업'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타겟을 예술로 정하고 그것의 성과인 예술제를 3년마다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지의 예술제라고 불리는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이다.

○ 에치고츠마리 Art Necklace 정비사업

에치고츠마리 아트 목걸이 정비 구상은 당시 6개 시정촌에 분할되었던 도카 광역 행정 지역을 "아트로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아 명명되었다. 이 구상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이 실시되었다.

▶ 에치고츠마리 8만명의 멋진 발견 사업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재발견하기 위한 사진과 단어의 콘테스트이다. 주민과 여행자 등으로부터 응모 총수는 3,114 점에 달했다.

▶ 꽃길 사업

도로와 민가의 마당 등에 꽃을 심어 광역 행정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로 정비와 공원 만들기 (포켓 파크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비의 추진이 병행하여 생각했다.

▶ 스테이지 정비 사업

유명한 예술가와 건축가의 참여는 지역의 교류 거점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된 에치고츠마리 교류관 키나레 빛의 박물관, 마츠 농업 무대, 숲의 학교 교로로 현재도 대지의 예술제의 거점 시설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대지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목걸이 정비 구상의 성과를 3년에 한 번 발표하는 자리로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기획되었다. 아티스트와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 지역에 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 그 매력을 향상시켜 세계로 나가고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 대지예술제'의 새로운 심볼 마크

연속되는 형태들

3개의 정점을 가진 정삼각형은, 3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대지의 예술제]의 개최주기를, 또, 끊기지 않는 3변은 [대지 예술제의 마을]이 지난 행사에 이어서 계속 연속되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대지를 가리키는 것들

하나의 정점이 맨 아래를 향하는 역삼각형은, 대지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그것은, 에치고츠마리가 있는 장소를, 또 시간은 예술이 있는 장소를, 우리들에게 [여기]를 포인트로, 알려주는 형태이다.



대지의 예술제의 마을,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

3개의 점을 연결 가능한 삼각형은, [자연], [예술], [사람]이라고 하는, [대지의 예술의 마을]에 두어 무척 중요한 3기둥을 연결시켰다. 에치고츠마리의 아트 필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2) 대지예술제

○ 대지예술제

대지의 예술제는 에치고츠마리를 무대로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전이다. 지역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를, 예술을 매개로 발굴하여 전세계에 어필함으로써 지역재생의 활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세대, 장르를 초월한 사람들간의 협동과 “인간은 자연에 내포되어 있다”는 기본이념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지의 예술제는 새로운 지역건설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대지예술제의 배경

1994년 니이가타현 지사가 제창한 광역활성화 정책 ‘새로운 니이가타 창조계획’을 세우고, 아트에 의해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며, 교류인구의 확대 등을 도모하는 10개년 계획으로 “에치고츠마리 아트 네클레스 정비구상”을 시작했다. 그 어드바이저로서 아트디렉터인 기타가와 프람에게 요청하였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 지역활성화 사업의 기둥으로서 “대지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가 2000년 시작되었다.

▶ 대지예술제의 이념

3년에 1번 열리는 예술제가 지역만들기의 기점이 되며 외소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에치고츠마리의 지역재생의 계기로 지역자원의 발견과 지역의 지혜를 학습하여, 주민과의 협동, 공간을 숨쉬도록 만든다는 아트가 갖는 힘을 믿으면서 지역만들기를 기획하였다.

“대지예술제의 고향”은 3년에 한번 세계 최대급의 국제예술제인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의 무대가 되는 에치고츠마리 지역(니이가타현 도오카마치시, 쓰난마치)을 말한다. 1년동안 지역에 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아트를 매개로 일으키고, 매력을 높이고, 세계에 알리며, 지역재생의 코스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성과발표의 장이 “대지예술제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이다.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논과 밭, 생활공간, 폐교, 공가, 댐, 터널, 선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농지, 택지, 지형 등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개최되는 해로서 2015년의 주제는 “예술을 통해 떠오른 것”으로 7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된다. 지금까지 예술제에 의해 만들어 온 작품이 1000여점 정도에 이르며 참여하는 취락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 7만의 농촌을 찾는 인구는 무려 50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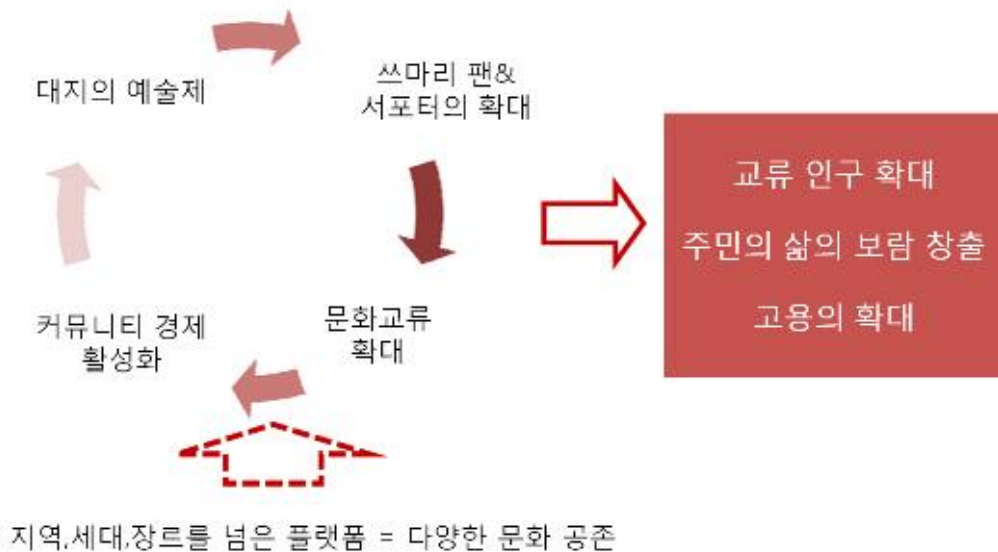
횟수	개최	참여국	작품수	작품전시 취락수	방문객수
1회	2000년	32개국	146점	28集落	162,800명
2회	2003년	23개국	224점	38集落	205,100명
3회	2006년	45개국	329점	67集落	348,997명
4회	2009년	38개국	365점	92集落	375,311명
5회	2012년	44개국	367점	102集落	488,848명

○ 대지예술제의 특징

▶ 산촌과 예술

대지의 예술제에는 그간 수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왔다. 매 행사마다 산과 강, 밭과 그림 같은 것이 주제인 예술 작품들이 뿔뿔이 흩어져 광대한 지역에 전시되었습니다. 작품을 한 곳에 집중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의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분산 전시'하여, 현대의 합리화, 효율화와 대비되는 '**철저한 비효율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향 산촌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부각시키고 그곳에 겹겹이 녹아있는 인간의 시간을 드러내는 작품을 돌아보면서 방문객들의 오감을 열게 하고 살아있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토지를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에치고쓰마리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지역·세대·장르가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협동이 새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가들은 「타인의 토지」에서 무언가를 창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한다. 결국 예술가들의 이런 학습과 열정은 주민들을 움직이고, 주민들은 「관객」이 아닌 협력자로 작품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 200여개의 작품들

에치고쓰마리에는 약 200여개의 예술 작품들이 여기저기에 상설전시 되어있다. 설치된 작품들은 지역의 역사와 자산, 마을 뒷산의 매력을 한층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과 아티스트들 그리고 지역 외 후원자들 사이의 협력과 유대가 생겨났고, 방문객에게 주민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차와 절임반찬을 내가는 등 대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 빈집 프로젝트

탈농 과속화와 지진에 의해 늘어난 빈 집들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레스토랑, 숙박시설로 재생하여 동네의 거점, 일터, 방문객들과의 교류 거점으로 이용하는 '빈 집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현재 동네 주민들과 함께 약 20개 작품을 운영해 가고 있다.

▶ 폐교 프로젝트

동네의 중심에 있고 아이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항상 울리던 장소이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추억의 곳이지만, 동시에 과소화와 소자고령화에 의해 빛을 잃어가게 되어버린 초

등학교. 이러한 폐교를, '최후의 교실' 크리스천 볼탄스키 박물관과 '화분&다시마 세조 그림책과 나무열매 미술관' 등, 톱 아티스트에 의한 리노베이션으로 항구 전시 작품으로서 거점 시설화 그리고 숙박과 식사를 겸하는 거점작품화를 통해, 방문객들의 회합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만, 연간 영업과 운영면, 유지관리면 등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예능 프로젝트

지역과 동네에 남아있는 마쓰리·예능과 춤을 콜라보레이션 한 퍼포먼스와, 농경민족의 민속 문화의 유의함을 볼 수 있는 아시아 예능 등 세계 각지의 희소 예능 공연, 태고(일본 전통음악에 쓰이는 북)집단 의 합숙형 여름 마쓰리에 참가를 기획하는 등, 에치고츠마리에서 시작 된 여러 가지 오리지널 퍼포먼스를 지역 내에서 전개한다.

▶음식, 상품개발

향토요리, 지역 식재를 활용한 메뉴개발 말고도, 지역의 주부들이 토지의 식재를 사용한 요리를 갖고 와 경쟁하는 콘테스트도 개최하고 있다. 그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명물요리, 정식화하는 것이죠.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토야마(뒷산)의 맛'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고 있다.

상품은 지역의 명산품과, 전국에서 공모한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능력을 매칭시켜 원래 있던 오미야게(토산물)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 'Rooots'를 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높이 평가되어 2010년 굿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2009년 매출이 8000만 엔 이었다.

▶인적 네트워크 : 지역, 세대, 장르를 뛰어넘은 협동

타지역 사람들이 예술제 서포터(후원자)로 참가하고(각 회당 등록 약 800명),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의 예술제 참가 수는 10년 간 500 팀을 훨씬 넘었다.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서포터, 아티스트와의 교류가 동네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외의 서포터, 기업, 전문가, 각계의 활약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

마쓰다이 다이칸야마 클로즈 컨트리 : 마쓰다이의 야채를 다이칸야마(도쿄 소재)에서 정기적으로 직판.

계단식 논 오너 제도 : 교토부의 휴경지 소유자를 모집해 그 고장과 도시가 협력해 계단식 논 경작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현재 50팀 정도가 회원이 되었으며, 약 1헥타르를 담당하고 있다.

(3) 주요시설

○ 에치고츠마리의 체험시설

▶ 마츠다이 “노우부타이”

농경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시점의 종합문화시설. 부대시설로는 전람회, 식당, 매장, 종합안내소 등이 있다. 정보수집, 기념품 구입을 위해 예술작품을 둘러보는 전후로 방문하면 좋다.

▶ 에치고츠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건축가 하라 히로시가 설계한 도오카마치시 중심에 위치한 건물. 현대미술관, 온천, 카페(식사 가능), 뮤지엄 숍 등이 있다.

▶ 에치고마츠노야마 “숲 속 학교” 교로로

마츠다이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연박물관. “주민 모두가 과학자”라는 컨셉 하에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자연체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



마츠다이 “노우부타이”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숲 속 학교” 교로로

○ 에치고츠마리의 음식시설

▶ 에치고 마츠다이 사토야마 식당

카바코프의 작품 “계단식 논”을 조망하면서 신선한 제철 채소로 만든 건강식을 즐길 수 있다. 영업: 10:00~17:00(점심 11:00~14:00).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과 연말연시는 휴무

▶ 우부스나 하우스

리뉴얼 오픈한 전통가옥 레스토랑. 호탕한 성격의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준다.

▶ Hachi Café

교실로 쓰였던 목조건물 안에서 현지 재료로 만든 아로스 등의 스페인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영업: 10:00~16:00. 5월~11월 영업. 수/목요일 휴무(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 카페(에치고츠마리사토야마 현대미술관 내)

에치고츠마리사토야마 현대미술관 내에 위치한 카페.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영업: 11:00~22:00.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과 연말연시는 휴무

▶ [기념품]

Rooots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 디자이너와 예술제 참여작가들이 만든 에치고츠마리의 특산품. 술, 쌀, 과자 등 뛰어난 디자인의 지역특산품들을 마츠다이 ‘노우부타이’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에치고츠마리의 숙박시설

▶ 산쇼 하우스 : [새롭게 변신한 초등학교에서 멋진 하룻밤을~]

도미토리 타입의 숙박시설. 숙박 외에도 세미나, 합숙&연수 등 폭넓게 이용. 1박 2식 5,800엔~

▶ 가타쿠리 하우스

일본의 비경 100선 중의 하나인 '아키야마고'에 있는 초등학교가 온천 여관으로 재탄생.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요금: 1박 2식 8,800엔~

▶ 빛의 여관 : [거장들의 작품에서 잠들다]

빛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에서 숙박 체험할 수 있는 전세계에 단 하나뿐인 시설. 요금: 시설이용료 20,000엔 + 1인당 3,000엔 식비 별도, 취사 가능

▶ 허물 벗은 집

니혼대학 예술학부 조각코스 학생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조각으로 탈피(=재생)시킨 150년 된 민가. 요금: 시설이용료 15,000엔 + 1인당 3,000엔 식비 별도, 취사 가능

▶ 드림 하우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민가를 무대로 연출한 작품. 투숙객들은 자신들이 꿈 다음날 아침 '꿈의 책'에 기록한다. 요금: 6,300엔. 식비 별도.

▶ 후시구로 성터 캠프장 코티지

신진 기예 건축가들의 개성 풍부한 코티지 외, 취사장이 완비되어 있는 캠프장.

▶ 마츠노야마 온천 외

에치고츠마리에는 일본의 3대 약탕인 마츠노야마 온천 등 온천여관, 리조트호텔, 료칸,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산쇼 하우스



가타쿠리 하우스



빛의 여관



드림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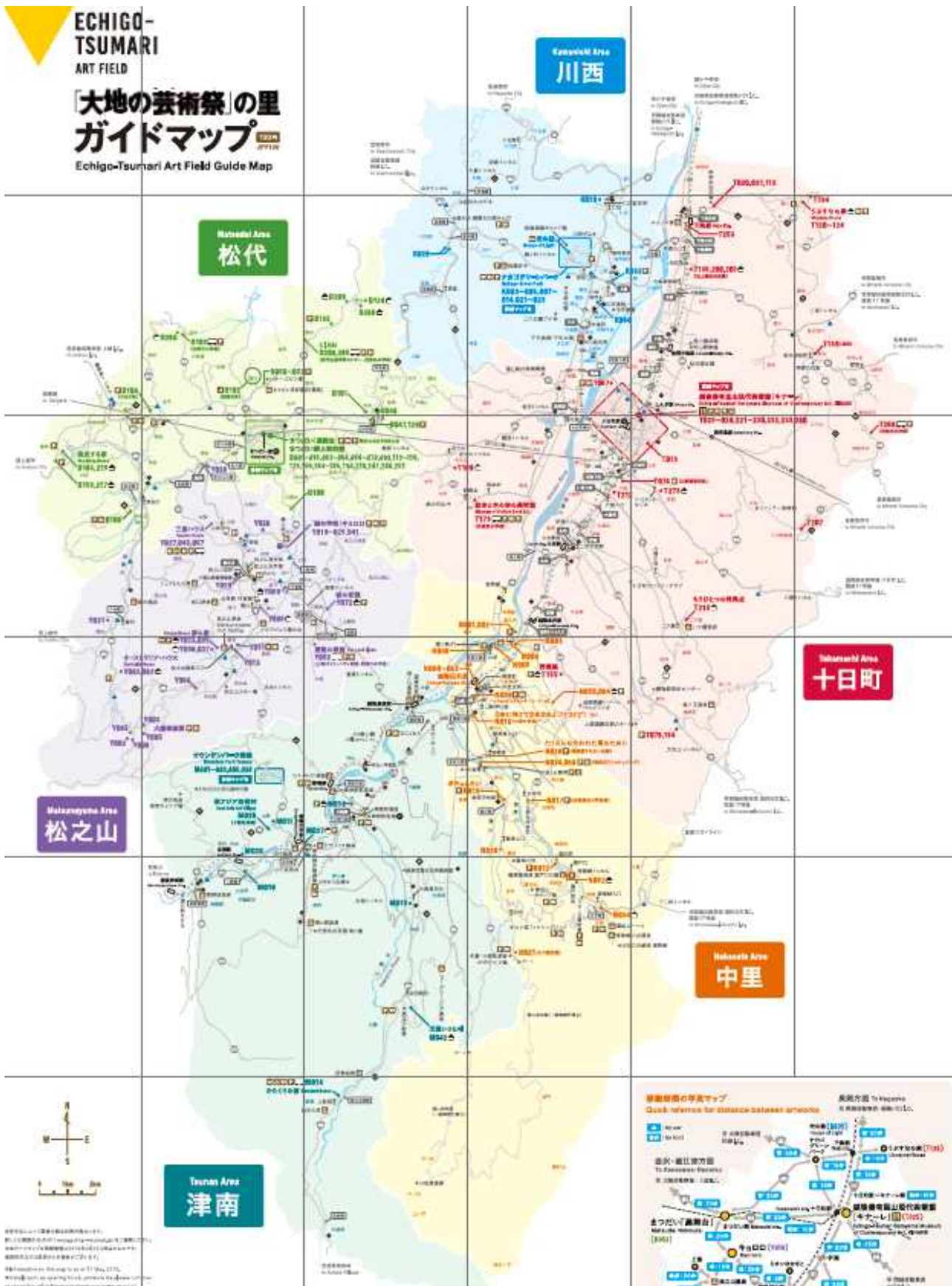


허물 벗은 집



캠프장 코티지

(4) 작품들





ECHIGO- TSUMARI

ART FIELD



0 5km



○ 에치고츠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키나레] : 越後妻有里山現代美術館 [キナレ]

토오카마치(十日町) 명칭의 기본이 된 도회지를 이미지로 하여 권역전체의 사람, 작품, 정보가 교차하는 장으로서 건축가 하라히로시(原広司)사 설계. 폭설지에서는 보기 드문 반 옥외식 회랑을 갖는 건물이 2012년 7월 29일에 에치고츠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키나레]로서 다시 태어났다. 지형, 취락, 논밭, 폐교, 공가, 건축, 음식,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전체가 미술관이 된 에치고츠마리를 돌아보는 여행의 게이트가 되는 미술관이다.

에치고츠마리는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부지의 환경은 도심의 특수한 조건하에 있다. 우선, 시설자체가 공간적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스스로 집객력을 만들어내는 건축적 특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에서 건축 그 자체가 자연을 포괄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여, 자연의 하나로서 「연못」을 선택하였다. 둘러싸는 계획을 하는 경우에 순수기하학 형태인 「정방형」은 다른 형태보다도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그 부지가 있는 거리의 속에서 경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 노출 마감과 글라스를 많이 사용하여 「조용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모습은 외부로부터 동떨어진 별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내부공간에 배치된 몇 개의 방은 「건물 속의 건물」이 되며, 「상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으로서 사찰과 신사의 신성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건축방식이기도 하다. 2003년 토오카마치 스테이지 「에치고츠마리 교류관·키나레」로서 탄생한 이 건축물이 2012년에 에치고츠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키나레]로서 다시 태어났다.

취락, 터널, 조몬토기 등 에치고츠마리를 테마로 한 상설작품과 기획전에 의해 지역 그 자체를 시설에 매입시켜, 세계, 현대, 지역, 사토야마가 교차하는 현대미술관이다.

※ 시설 내에 온천과 바(bar)가 있다.



○ 에치고 시나노가와바(越後しなのがわバル)

에치고 시나노가와바는 에치고츠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키나래]의 내부에 있는 식당이다. 여기서 그 토지의 그 계절에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토지에서 전해오는 조리법으로 먹는 「토산토법:土産土法」에 의해 지역이 전하는 전통의 맛을 계승하고 있다. 메뉴와 인테리어도 대폭 리뉴얼하였다. “다섯가지 맛과 다섯가지 방식으로 국 한그릇에 세가지 반찬 : 五味五法で一汁三菜”을 기본으로 소박하게 먹어 건강하고 몸에 좋은 깊은 맛이 넘치는 고향의 요리를 선사한다.

▶점내

점내의 벽면은 부드러운 곡선의 책장으로 둘러싸여있고, 천정의 무수한 둥근 모빌은 강의 수면과 같은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테이블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시나노가와(信濃川)를 표현하고 그것을 찾듯이 천정의 라이트도 따듯한 빛을 내고 있다. 강과 같이 여유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흐르는 점내는 손님들 각자의 대화도 신바람나게 해 줄 것이다.

▶캐주얼하고 토지에 기인한 “따뜻한 향토요리”

야채 중심의 몸에 좋은 요리를 준비. 시나노가와 유역의 대지의 혜택을 받은 지역식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만든 요리. 사토야마의 。마을의 삶을 지지하는 어머님들이 자신있게 만들어 온 하나하나가 손님에게 전달된다.



○ 두더지의 집(Soil Museum もぐらの館)

2009년에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한 흙은 느낄 수 있는 미술관. 흙의 매력을 아는 9조의 작가인 미장장인(左官職人)、사진가, 예술가가 참여한 작품과 2개의 프로젝트가 전개.



○ **그림책과 나무와 열매의 미술관(絵本と木の実の美術館)**

토오카마치에는 외소화되어 폐교한 초등학교가 10개교 이상있다. 학교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주민에게 사랑받아왔다. 에치고츠마리에서는 폐교가 된 학교를 취락의 문화거점으로서 다시한번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책과 나무와 열매의 미술관(絵本と木の実の美術館)은 폐교한 구 사나다초등학교를 무대로 하여 교사 전체가 그림책과 같이 구성된 작품.

산과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하치(鉢)라고 하는 취락이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는 폐교되어 취락의 주민들과 그림작가인 田島征三에 의해 작은 미술관이 되었다. 텅텅빈 교사를 무대로 최후의 재학생과 학교에 숨어있는 도깨비들과의 이야기가 그림책 『학교는 텅비지 않는다』가 되어, 그 이야기가 교사 전체로 퍼져간다. 체험형의 “공간 그림책” 미술관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모두의 웃음소리를 먹는 토페라토토. 꿈을 납작하게 찌그려트린 도라도라반. 학교에 숨어있는 많은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다.

▶ **부모와 아이들이 하루 놀 수 있는 미술관**

교사 속에는 재미있는 교실이 많다. 덩불교실, 뒹굴고 있는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교실, 선물코너도 있으며, 교실은 이벤트 공간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여름부터 가을에는 그림책 작가에 의해 원화전(原画展) 등을 개최.

▶ **활기찬 콘서트와 라이브 등의 이벤트도 충실**

해마다 여러 차례 게스트를 초대하여 콘서트와 라이브를 개최. 부모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워크샵도 있다. 그 밖에도 가을축제, 가을수확제, 눈축제 등 각각의 계절에 실시하는 취락의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 마츠다이 「농무대 : 農舞台」

농무대 주변은 예술제요소가 집약된 야외 미술관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환」이라는 테마아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신하는 종합문화시설이다. 음식, 쇼핑, 이벤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츠다이(松代)의 설국농경문화를 체감할 수 있다. 토지의 대부분을 산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강설향을 자랑하는 도오카마치시 마츠다이(十日町市松代). 1,000년을 거친 마츠다이의 농경문화는 험한 자연과의 지혜비교였다. 산간에 논바닥을 개간하고(계단식논), 강의 흐름을 바꿔 논을 경작하고(瀬替田), 붕괴된 농토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한 자연과 일체화된 삶의 축적이 세계의 자랑할만한 마을산, 농촌이 되고 있다.

마츠다이 「농무대:農舞台」는 이러한 삶을 발굴하고 발신하는 설국농경문화와 예술의 야외 미술관이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인 MVRDV가 설계한 건물은 건물과 방 그 자체가 여러 작가가 디자인한 예술작품이 되고 있다. 다리모양의 브릿지가 건물을 공중으로 띄우고, 건물하부의 공간을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 존으로 여름에는 그늘광장으로 바꾼다. 옥상에 있는 암석산의 랜드스케이프는 매력적인 놀이공간이 되고 산과 예술작품을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된다.



또한 갤러리, 식당, 샵을 병설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순례의 정보수집과 마츠다이의 죽순 식자재를 사용한 식사, 토산품 쇼핑이 가능하다.

▶ 마을산과 예술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주변에 펼쳐지는 마을산에는 구사마야요이(草間彌生)의 「꽃피는 츠마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이 점재해 있다. 마을산의 대지에는 빛나는 색채가 풍부한 조형, 현대예술의 매력을 마을산의 사계와 함께 느낄 수 있다. 걸어서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 공간 전체가 예술작품

건축물 내에는 바닥과 천정도 전체가 검은판으로 되어 있는 방과 별이 내리는 마을산의 밤하늘과 같은 원형의 이로리의 방 등 재미있는 시도가 숨어있다. 일리야와 에미리아·카바코후의 작품 「계단식논」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건물아래의 공간에는 타이코(太鼓)와 연극 등의 이벤트를 개최한다.



○ 마츠다이 사토야마식당(まつだい里山食堂)

물색의 인테리어가 청량하게 보이는 내부. 한면에 유리불임의 창에서는 눈부실 정도의 햇빛이 내리쬘고 거울의 테이블에는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비쳐진다. 눈앞에 펼쳐지는 계단식논의 풍경과 푸른 숲을 내려다보면서 여유 있게 보자.

마을산의 자연소재와 죽순의 혜택을 활용한 계절의 가정식 스위트, 홍차와 커피, 손으로 만든 진저에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없는 풍요로운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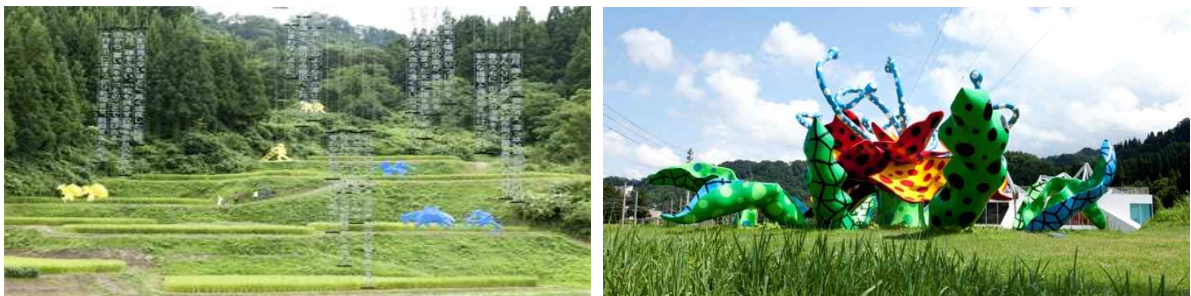


○ 일리야와 에미리아 · 카바코후 「계단식논」

작가인 일리야와 에미리아 카바코후는 회화와 오브제, 언어, 음 등을 사용한 표현수법으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세계 최정상급의 아티스트 부부이다. 전통적인 벼농사 풍경을 시로 지은 텍스트와 대안의 계단식논에 농사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뜬 조각을 배치한 「계단식논」은 농무대 내의 전망대에서 보면 시와 풍경, 조각작품이 융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 구사마야요이(草間弥生) 「꽃피는 츠마리」 (마츠다이 「농무대」 바로 옆)

구사마야요이는 60년대 미국 예술장면의 총아가 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아티스트이다. 소녀시대의 환시·환청체험을 기초로 한 반복증식하는 「물방울」등을 모티브로 하여, 폭넓은 작품을 발표해 왔지만 야외작품 중에서도 본인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거대한 꽃의 조각작품.



○ 마츠다이 향토자료관

건축된 지 약 140년 된 느티나무로 만든 민가를 이용한 향토자료관이다. 폭설지대 특유의 중후한 건물로서 마츠다이의 생활에 밀착한 민구와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에도시대 말기에 건축된 느티나무로 만든 안채(목조 2층건물)는 약 10m 정도의 검은 기둥과 보로 지지되고 있다. 폭설에도 견딜 수 있는 중후한 건축으로 이로리와 좌식, 차실, 손님방 등이 당시의 그대로 남아있다. 국가중요문화재 「松亭神社」의 자료와 「일본의 마을 100선」에 선정된 계단식논의 영상, 설국의 생활용구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약 2,000점의 민구(民具)를 수장하고 계절마다 지역의 삶을 전하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안내하고 마츠다이 도시락을 바꿔가면서 지역특유의 자연과 생활, 민속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편안한 공간으로 오래되고 양호한 마츠다이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로리 앞에서 지역의 사람들과 환담

폭설지의 생활에 대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스태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의사의 집(ドクターズハウス)**

예전에 병원이었던 빈집으로 집 안에 거울을 활용한 설치미술을 발표. 또 이 블루의 디렉션 하에서 그녀를 서포트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4명도 그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아티스트 : 이 블루 / 스튜디오 이 블루



○ 빈집의 스펙트럼(つんねの家のスペクトル)

싸듯이 꿰매는 것과 같이 속에 채움재를 하고 가위, 못, 식칼 등 예리한 물품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빈집에서 설치미술을 전개한다. 또 「つんね」는 산 위를 의미하는 집의 칭호다.

코디네이터 : 白羽明美

아티스트 : 아네트 메사지(프랑스))



○ 창고미술관(清津倉庫美術館)

6년 전에 폐교한 清津峽 초등학교를 리뉴얼. 체육관을 대폭 리뉴얼하고 작품의 보관고와 갤러리를 겸한 창고미술관이 된다. 첫선이 되는 이번에는 4명의 작가경전기대학 + 공립여자대학팀에 의한 지역의 정보와 도시락 등 「음식」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기요츠집》이 전개된다.

아티스트 = 山本想太郎, 음식어드바이저 = 今井義浩



○ 포템킨(ポチ ヨムキン)

나에게 포템킨은 생명의 출발점이다. 포템킨이 머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 생명이 나를 어딘가로 향하하도록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포템킨은 현대인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의 분기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기술세계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구를 파멸시키는 모든 수단을 손에 넣고 있다. 건축가, 아티스트, 경계계획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휴머니스트는 지금 이 분기점에서 자기들의 역할과 책임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을 포함하고 있는 포템킨은 현대인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포스트 산업시대의 아트로폴리스로서 잠시 멈춰있다. 나는 포템킨을 예로부터 논밭과 하천의 사이에 위치하는 신사에 대한 정면축을 갖는 문화적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마가와(釜川)의 근처, 쓰레기장 대신에 버린 과거의 놀이공간이 핀란드의 건축가 그룹 「카사그란디&린다 건축사무소」에 의해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 나무, 자동차 타이어 등, 20세기의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한 유구와 벤치, 거목과 공원전체에 깔린 하얀 자갈. 조용한 공간 속에서 하천의 물소리, 눈앞에 펼쳐지는 논밭, 먼산 등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아티스트 : 카사그란디와 린타라 건축사무소(핀란드)



○ 많은 잃어버린 창을 위하여(たくさんの失われた窓のために) 등

방의 창에서 보이는 풍경은 「나의 풍경」이 된다. 창에서 보이는 풍경을 통해서 외부로 펼쳐지는 츠마리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한 창. 흔들리는 커튼은 바람을 비추고 있다. 작가는 츠마리를 방문할 때 츠마리의 자연에 압도되었다고 한다.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하게 핀 꽃과 같이 작품을 주목하고 있다. 길게 뻗은 커튼은 작품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태양광과 마을산의 바람의 속삭임을 보내어 준다.

아티스트 : 内海昭子(日本)



○ **Kiss & Goodbye**

반원형 창고를 배치한 시설로 대만의 인기 그림책 작가가 작품을 전시.

대만의 인기 그림책 작가가 에치고 츠마리와 열차를 무대로 도시와 지역의 연계를 그린 그림책 『열차에 타서 (仮) 』를 발행 (일본판은 현대기획실 출간). JR飯山선, 土市역과 에치고 미즈사와 역의 가까이에 반원형 창고를 배열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림책의 세계를 재현한 작품전시 등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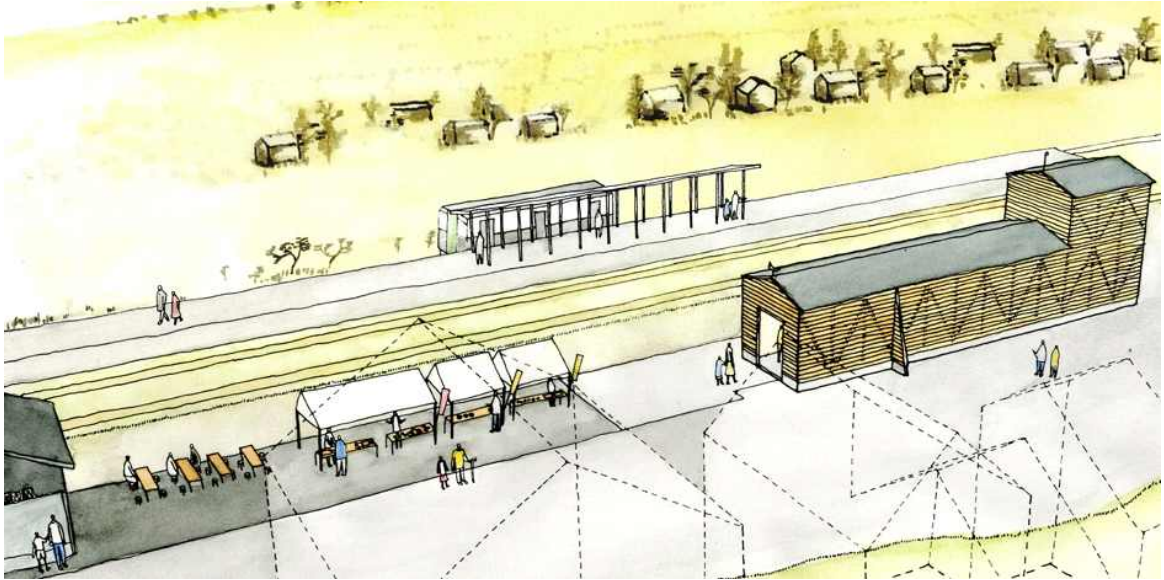
아티스트 : 지미 · 랴오(대만)



○ 배의 집(船の家)

JR飯山선 에치고다자와역의 플랫폼과 함께 좁고 길게 설계된 河口龍夫 작품을 수장한 건물이다. 내외의 벽은 부드럽게 마감되어 전시공간은 부드러운 자연광으로 감싸여져 있다. 역전광장과 연결되어 지역과 도시의 교류의 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티스트 : 아틀리에 원 + 東京工業大学 塚本研究室



○ 토석류의 모뉴먼트(土石流のモニュメント:磯辺行久)

長野県 北部地震으로 피해를 입은 기록을 나타내는 2015의 상징 프로젝트이다.

辰ノ口の 砂防댐은 長野県 北部地震에서 발생한 土石流跡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3m의 황색폴을 약 230본을 설치하고 예전의 土石流의 퇴적을 표현한다. 또 댐의 제방에 계단과 전만대를 설치하고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아티스트 : 磯辺行久(일본)



○ 최후의 교실(最後の教室)

「인간의 부재」를 표현한 미술관으로 거장 크리스찬 볼탕스키의 작품이다.

2003년에 같은 장소에서 작품을 전개한 작가로서 이번 계획을 채우기 위하여 작가가 현지를 방문한 것은 기록적인 대설이었던 2006년의 겨울이었다. 그곳에는 2003년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과 눈으로 폐쇄된 학교가 있었다. 5개월 동안 폭설로 폐쇄된 지역을 작가는 그때 실감했을지 모른다. 장소의 기억을 건물 속에 밀도있고 무겁게 가둔 작품이다. 일반공개에 앞서 실시한 취락대상의 내부전시회에는 지역의 고령자가 많이 참가하였다. 그때 지역, 학교에 크게 착된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들은 입구부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스페이스에 조용히 모여있다.

아티스트 : 크리스찬 볼탕스키 + 장 칼망(프랑스)



○ 탈피하는 집(脱皮する家)

벽, 바닥, 기둥 등 손닿는 곳을 조각칼로 파고, 가옥을 새로운 한면이 표출되고 있는 작품이다. 제작에는 약 2년 정도 걸렸고, 3000명 노동의 미완성된 공간은 압도적인 박력을 갖고 감상하는 사람을 감싼다. 운영에는 지역주민도 관계하여 2층에는 원래 주인의 물품도 그대로 남아있다. 목욕탕, 부엌, 화장실도 완비되어 있고 1층에 방 2개(3명+2명), 2층에 방 하나(5명)의 객실이 있으며, 10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 우선, 자취도 가능하다. 가족과 친구 끼리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학생들의 연수합숙 등에도 최적이다. 압도적인 예술공간과 힘 있는 민가의 모습, 조용한 밤, 맑은 공기의 아침, 아름다운 계단식논, 농촌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보낼 수 있다.



○ 「고로케 하우스」도 인접

뒤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된지 30년 가까이 된 빈집이 있다. 「脱皮する家」과는 거꾸로 집 속에 금속을 비추어, 금속 옷으로 싸인 것이 「고로케 하우스」이다. 1년 가까이 제작되어 주변의 지형과 논의 정비 등도 실시하였다. 이 2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鞍掛純一+日本大学 芸術学部 彫刻 코스 有志는 취락의 축제와 행사에 참가하고 2013년 이후는 호시도게(星峠)의 계단식논(棚田) 복원활동도 시작하여 취락과 연결을 하고 있다.

○ 호시도게의 계단식논(星峠の棚田)

「허물 받는 집」이 있는 호시도게 취락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호시도게 계단식논 (산간의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논)」가 있다. 「호시도게 계단식논」에는 경승지로서 사계를 통해 관광객과 카메라맨이 방문하고 있다. 계단식논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빗물만을 이용만을 이용하는 「천수답」으로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소출되는 쌀의 맛은 각별하다. 3m를 넘는 적설, 낮 동안의 한난차, 산에 물든 설해수가 최상의 쌀을 만든다.



○ 奴奈川の 캔버스(奴奈川キャンパス)

2014년 3월에 폐교한 奴奈川 초등학교는 지역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배우는 학교로서 다시 태어난다. 농업을 베이스로 음식, 생활, 놀이, 춤을 통해서 한사람 한사람의 편리한 것을 발굴하기 위한 장을 연다. 교사의 내외에는 작품이 설치되고 일반참가 가능한 수업도 있다. 학식 스타일의 식당도 있다.

보수설계 = 山岸綾

튜터 = 北川フラム (大地芸術祭学科)、鞍掛純一 (美術学科)、坂口淳 (体育学科)、山ノ家・荒井優 (家庭学科)、伊藤千枝 (ダンス学科)

食堂 「GAKUSHOKU@Nunagawa Campus」 企画運営 = 山ノ家、食堂



○ 산쇼하우스(三省ハウス)

취락의 언덕 위에 서있는 50여년의 목조교사를 개축한 숙소. 예전에 교실이었던 공간에는 80개의 청결한 배드(각 16개, 5교실)를 배치하고, 모임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움이 남아있는 목조교사는 1958년에 건축되어졌다. 50여년을 거쳐 현재도 폭설을 견디고 사람들의 손으로 소중히 지켜지고 있다. 식당, 테라스는 교실의 구획을 사용하여 숙박객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다. 여름에는 옥외테라스에서 겨울에는 장작스토브 주변에서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 세미나와 강의, 스포츠 대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겨울은 온통 눈에 덮인 교정이 있다. 입욕은 일본3대약탕 松之山온천의 일일 입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차로 10분)

▶ 주변환경

산쇼하우스가 위치하는 에치고마츠노야마는 일본 유수의 폭설지로 알려져 있고, 겨울의 평균적 설은 3m를 넘는다. 산간의 토지를 개간해서 영위하고 있는 생활은 계단식논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원풍경이라고 불리우는 경관을 만들고, 「일본의 계단식논 100선」, 「일본의 고향 100선」에 선정되었다. 미인림으로 대표되는 너도밤나무림에는 호반새와 파랑새 등의 희귀한 동식물이 생식하고 있다. 마츠노야마온천은 염분, 온천, 보습효과가 높고 일본 3대 약탕으로 알려져 있다.

▶ 식사

산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애정을 담은 밥을 지어온 취락의 어머니들이 만든 에치고 마츠노야마의 가정요리가 자랑거리이다. 마츠노야마의 계단식논에서 만들어진 쌀로 밥을 지은 맛좋은 밥. 엄동설한 차가움 속에 길들여진 된장과 보존조미료 「간장의 열매」、수제절임. 지역 고유의 산물을 마을산의 혜택을 맛볼 수 있다.



○ 숲 속의 학교 '쿄로로'(森の学校 キョロロ)와 미인림(美人林)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마을산 : 사토야마」의 자연과 문화를 전시하고 소개한다. 「미인림」은 수령 약90년의 아름다운 너도밤나무림. 사계를 통해 치유하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폭설지 마츠노야마의 산속에 위치하는 자연과학을 테마로 한 교육연수시설이다. 겨울에는 깊은 눈속에서 잠수함과 같은 무게의 2,000톤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 뱀과 같은 형태는 주변의 산책로를 이미지한다. 용접철판의 뱀은 겨울과 여름에 20cm 가까이 길이가 변화한다. 주변에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마을산 생물들의 보고이다. 필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쿄로로”라고 하는 이름은 토오카마치시 마츠노야마 지역의 모내기 계절에 한국에서 넘어온 호반새라고 하는 새빨간 물총새의 「쿄로로」라고 우는 소리를 따서 지어진 건물의 닉네임이다.

▶ 마을산 체험프로그램

마츠노야마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를 마츠노야마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를 오감넘치게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테마에 의해 오더메이드 프로그램도 접수를 받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정번의 「마을산 생물체험」에서는, 쿄로로 스태프와 함께 마을산에 마가서 계절에 따라 사토야마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생물의 채집과 관찰 등을 실시한다.

▶ 주변의 미인림 산책은 필수

그 서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미인림」이라고 불리우는 수령 약 90년의 너도밤나무가 있다. 눈 녹는 봄, 신록의 초여름, 단풍의 가을과 계절 마다 즐길 수 있다. 진귀한 야조도 생식하고 있다.

▶ 手塚貴晴 + 由比 / 마츠노야마 「숲 속의 학교」 쿄로로

빛나는 수상경력과 함께 佐藤可士和와 콜라보한 「후지유치원」 등에서도 알려진 手塚貴晴 + 由比. 폭설지 마츠노야마의 산속에 위치하는 자연과학을 테마로 한 교육연수시설이다. 주변의 산책로를 이미지한 길이 120m의 철 모티브는 겨울에는 깊은 눈속에서 잠수함과 같은 무게의 2,000톤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 탑에서는 나무의 끝과 산줄기를 관찰할 수 있다. 또 겨울에는 적설량이 다른 빛과 색을 창에서 체험할 수 있고, 여름에는 너도밤나무림과 계단식논이 벽면을 매우고 있다.



○ 사토야마 키친

도오카마치시 사토야마과학관 「숲 속의 학교」 교로로에 병설한 우오누마 고시히카리 등 지역식재료에 의해 그 지역 어머님들이 마을산의 성찬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토야마정식 (봄, 여름) 과 여름야채카레 (夏) 는 지역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인기메뉴. 「교로로 소바」와 「원조 쥬스」 등도 맛볼 수 있다. 음식점 내에는 대지예술제의 작품인 「메타모르포제 : 변신 - 장소의 기억-마츠노야마」가 전시되어 있다.



○ 폰슈칸(술 박물관)

니가타현은 쌀(고시히카리)과 일본 술로 유명하다. 특히 에치고 유자와역 구내에 위치한 '에치고 술 박물관 폰슈칸'은 최고 수준의 술과 일본의 술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색없는 여행지다.

니가타현의 청정자연에서 샘솟는 맑은 물과 쌀로 빚어낸 최고의 사케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이 박물관은 95종의 대표종목, 22개의 추천종목, 총 117개의 종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니가타현에서 생산하는 최고 수준의 사케 시음은 물론 술로 만들어진 과자와 다양한 특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박물관 내에는 술을 사용한 과자나 니가타현 특산품을 취급하는 매점을 비롯해 에치고의 96개 메이커가 모두 있는 시음코너(500엔), 일본에서 가장 맛있다는 우오누마산 고시히카리 밥과 지역 술에 맞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술 목욕탕(어른 800엔)등 역 구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알차게 갖춰져 있다.

지금까지 사케 맛을 몰라 권하는 대로 먹었던 사람이라도 이 박물관 한 바퀴만 둘러보면 주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한다. 이 박물관에 들르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 목욕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인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술을 애용했다. 폰슈칸에는 온천물에 사케를 부은 술 목욕탕이 있다.

"몸에 술 냄새라도 배면 어찌려고..."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단단히 묶여뒀다. 술로 하는 목욕은 모공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빨리 내보낸다. 최근에는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피부미인이 되겠다고 찾아드는 여성들로 넘쳐난다.

이 박물관의 시음료는 500엔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사케를 맛볼 수 있으며, 입욕료도 저렴해 어른은 800엔, 초등학생은 400엔이다. 교통도 편리해서 JR에치고 유자와역에서 하차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 다카한 료칸 내 <설국 전시실>

니가타는 눈이 많아서 설국이기도 하지만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의 소설 <설국>의 실제 무대이기도 하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추어 섰다..."로 시작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 "雪國(설국-유키구니)"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다카한에서 숙박하며 이 곳을 무대로 집필하여 더욱더 유명한 료칸이다.

다카한의 역사는 수 백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신문에서 니가타의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우연히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에서 온천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800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며 온천장을 지키고 있다.

야스나리가 설국을 집필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이다. 당시 에치고 유자와엔 료칸이 다카한을 포함에 3개 밖에 없었다. 당시 다카한을 운영하던 35대째 주인이 야스나리의 대학(도쿄대 문학부) 15년 후배라는 인연으로 이곳을 거처로 삼고 글을 집필했다고 한다.

예전 목조건물이던 료칸은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리모델링 됐지만 당시 2층의 저자가 묵었던 방은 그 자리에 그 자재 그대로 재현돼 있다.

야스나리가 '잡다한 일들을 잊을 수 있어 신선한 공상의 향이 솟는다'고 했던 방이다.

료칸내 1층 전시코너에서는 영화"설국"을 상영하고 있으며, 저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